곱게 늙어가는 미술관장의 초상

《어느 미술관장의 회상》 펴낸 이경성씨

'관장'이라는 직함이 이름으로 느껴질 만큼 평생을 미술관 주변에서 보내온 이경성(석남미술문화재단 이사장·호암미술관 자문위원)씨가 80세가 되었다. 그의 삶은 우리나라 미술관이 성장해온 시간이며 현대미술의 산 역사다. 그림을 그리듯 지난 날을 쓴 《어느 미술관장의 회상》(시공사)에는 그 80년의 세월이 담겨 있다.

"미술과 만나 평생 함께 살아온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미술은 그에게 운명적이었다. 문학을 공부하러 일본에 갔을 때, 마중나온 사람이 하필 미술학도였다. '장사꾼' 아버지에게 학비를 타내기 위해 와세다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는 동안 미술서적을 읽고 각종 전람회에 다녔다.

"미술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당시 유일하게 미술사를 공부한 개성의 고유섭 선생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27세의 나이로 인천시립박물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관장을 맡은 것도 그 분의 영향이었다. 고유섭 선생과 교유하는 동안 황수영·진홍섭 등 우리 고미술사의 거장들과도 만날 수 있었다. 그 이후 그는 지금까지 국립현대미술관장, 워커힐미술관장, 일본 소게츠미술관 명예관장을 거쳤다. 그 미술관에서 화가들을 만나고 또 많은 일을 겪었다.

"1951년 부산 피난지에서 열었던 한국현대미술전이나 1991년 천경자의 '미인도 사건' 같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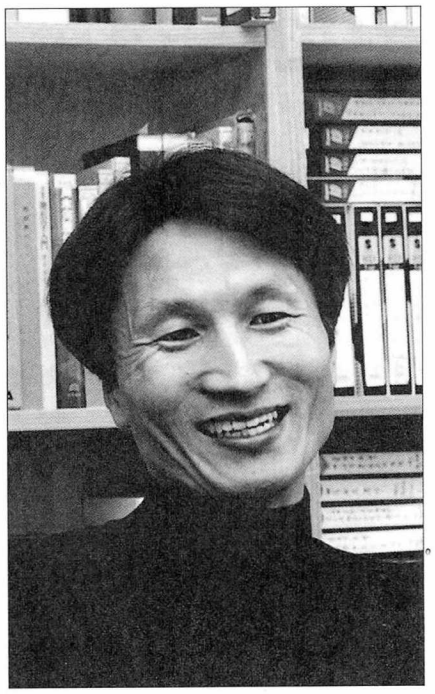
보통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전시의 미술전을 그는 '전장 속에 핀 꽃'이라고 표현했다. 문화가 '관광'과 동격으로 취급당하는 지금 상황에서 생각만 해도 통쾌한 일이다. 나이를 먹으니 쉽게 타협하고, 참고, 모든 일에 그러려니 하게 된다는 그는 지금 곱게 늙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다.

1971년 일본에서 쓰러진 이후 심장병과 고혈압, 전립선염 등 온갖 성인병에 시달리는 그는 매일 맞는 아침을 은혜로 생각한다. 가까운 친구들이 모두 떠나고 "이제는 내 차례"라고 늘 되새기지만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 하는 욕심이 생긴다. 하고 싶은 일이 아직 많아서다.

"20년 이상을 서양미술사 선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서양미술사를 쓰고 싶었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배우고 싶었지만 '실연'당하고 만 것도 아쉽다. 금세 눈이 침침해져 오랫동안 책도 볼 수 없게 됐다는 그는 그림그리는 일에 마음을 붙였다. 이미 일곱차례나 개인전을 열었지만 아직도 그림은 유희본능으로 그린 낙서 같은 것이다. 이경성씨의 책상 한켠에 동경호텔에서 사람을 기다리며 그렸다는 인간 군상은 그가 삶을 그렇게 촘촘히 메꾸며 살아왔음을 보여준다.

— 이현주 기자



일상에 밀착된 지리이야기

《지리이야기》 펴낸 권동희씨

산과 들, 강과 바다는 인간의 태반이자 양수다. 그곳에서 인간은 생명을 부여받고 죽음의 제의를 치른다. 곳곳에 길이 놓이고 집들이 들어선다. 도시의 불빛이 일렁이고 시장이 들어서면서 삶의 공간적 배치가 완성된다. 인간들의 삶에 대한 열정과 대지의 숨결이 어우러지면서 역사는 시작되고 삶은 계속된다. 지리학은 바로 인간이 대지에 새겨넣은 흔적의 역사를 대상으로 한다.

동국대 권동희 교수(43)가 펴낸 《지리학이야기》(한울)는 자연과 인간이 주고받는 교감의 이야기다. 지금까지 지리학이 난해한 개념어들로 우리를 질리게 했다면 이 책은 지리학이 우리 삶의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는 지극히 고전적인 진리에서 출발한다.

"85년부터 지금까지 대학에서 지리학입문 강좌를 맡아왔습니다. 학생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지리학을 가르치려고 나름대로 고심한 것들이 한권의 책으로 묶였습니다."

이 책에는 일상생활에 밀착된 흥미있는 주제들이 지적인 구미를 당긴다. 한겨울의 따뜻한 날에 내리는 함박눈 때문에 '함박눈이 내리는 날은 거지가 빨래하는 날'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이야기,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각종 스캔들에 시달리는 이유는 백악관 집무실의 기(氣)가 뜨겁고 불안정하기 때문이라는 풍수전문가의 이야기, 한강이 고대문명의 발상지가 못된 이유는 적도서풍의 남하로 건조화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등의 다양한 주제들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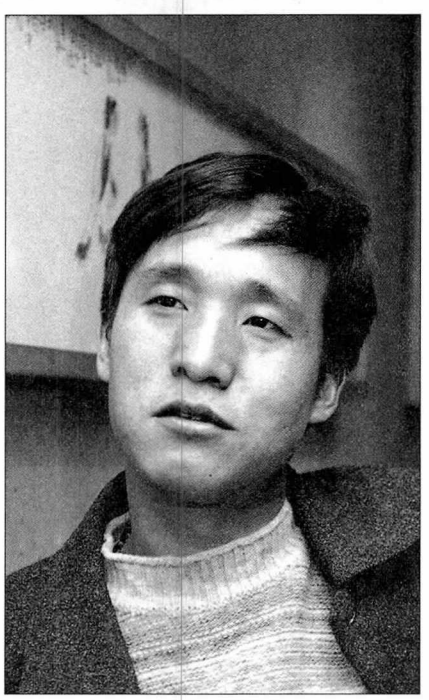
"우리가 지리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지리적 안목'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지리적 안목을 통해 인식의 폭을 시간과 공간 속으로 넓혀 우리 주변의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의 강의는 딱딱한 텍스트 해석 위주의 수업을 지양한다. 지리학이 생활과학이라는 철학을 지니고 있기에 무엇보다도 현장의 변화를 발빠르게 답사해서 수업시간에 활용한다. 세시간 수업시간에 최소한 40~50분은 비디오 영상자료를 토대로 강의한다. 생생한 수업을 위해 그는 틈만 나면 현장에 달려가 비디오와 슬라이드 필름 등으로 공간적 변형을 영상에 담는다. 그가 지금까지 모은 비디오 자료만도 320여개가 넘는다.

"지리학은 결국 연구자가 발로 만들어가는 학문입니다. 이제부터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제가 만든 자료들을 다양한 형식으로 보급하는 일에 나설 겁니다."

현재 환경부와 공동으로 전국지형을 조사해 보존가치가 있는 경관지에 안내문을 새롭게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이 책의 후속편도 준비중이다. 좀더 주제를 보강하고 세분화해 더 풍부한 지리학이야기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번 출간을 계기로 《주간조선》에 과학적인 이론이 뒷받침된 '지리기행' 형식의 글도 연재할 계획이다.

— 박천홍 기자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

《제 친구들하고 인사하실래요?》 펴낸 조병준씨

여행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과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 우연함과 생경함을 맛보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지도 모른다. 번역가 또는 문화비평가로 활동하며 《나눔 나눔 나눔》 등을 펴내기도 했던 조병준(38)씨는 《제 친구들하고 인사하실래요?》(그린비, 박가서·장)를 통해 우연히 만났던 사람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술회하고 있다.

인도의 어느 여행자 숙소에 머무는 동안 투숙객들의 이상한 행동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새벽녘에 숙소를 나선 사람들이 정오 무렵이면 지친 몸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들은 마더 테레사 수녀의 정신을 받들며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나도 참여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지요."

봉사자들을 따라 도착한 곳은 소외된 사람들의 안식처 '사랑의 선교회'였다. 그곳에는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 3백여명이 있었다.

"약속된 정오까지 허드레 일부터 환자 돌보는 일로 숨돌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열흘 정도 봉사할 생각이었는데 석달이 후다닥 지나가는 겁니다."

선교회에서는 어떤 강제를 가하지도 않았지만 생활에 따른 혜택을 주지도 않았다. 오직 봉사자의 의지에 따라 일을 도와주면 그뿐이었다. 그런데도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봉사에 열중했고 생활비가 떨어진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 돈을 벌어 다시 캘커타로 돌아오곤 했다.

"몇 달 뒤에 다시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캘커타에 대한 생각이 불쑥불쑥 나는 겁니다. 그곳으로 왜 들어가야 하는가 반문도 했지만 결국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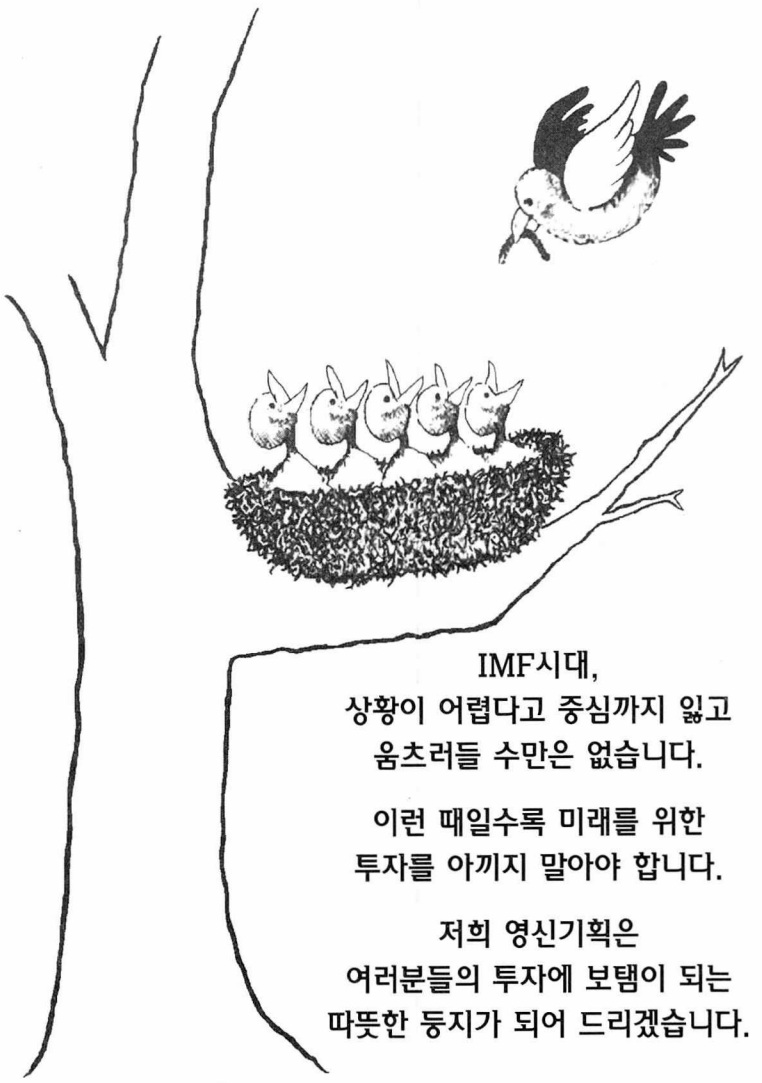
가장 낮은 곳으로 다시 들어간 뒤에 1년여를 머물면서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남자였지만 스스럼 없이 손을 잡고 다닌 이탈리아노 안젤로, 명절을 앞두고 집떠난 설움을 함께 나누던 링링, 천사의 미소를 가지고 있던 로르, 평생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서도 웃음을 잊지 않았던 삼부, '두또 두또' 하며 찾아줌을 반기는 모하메드 할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며 봉사에 몰두하던 많은 사람들이 가슴 저리게 만들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버리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물욕을 버리고 인연의 소중함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소득이었지요. 그나저나 책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물욕을 버렸다던 그가 책이 많이 팔렸으면 하는 바람을 거칠 것 없이 말했다. 당당히 요구한 12%의 인세를 받으면 고아원에, 북한 동포에게, 외국인 근로자에게, 캘커타 또는 국내의 사랑의 선교회에 보내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여행을 하며 만난 사람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담은 '사람 사는 따뜻한 이야기'도 써낼 계획이다. — 오완진 기자

영신기획
YOUNG SHEEN

좋은 작품을 만드는 곳
영신기획은
그런 편집회사입니다.



IMF시대,
상황이 어렵다고 중심까지 잃고
움츠러들 수만은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영신기획은
여러분들의 투자에 보탬이 되는
따뜻한 둥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전집 ‖ 아동용 ‖ 학습용 ‖ 일반용
단행본 ‖ 디자인 ‖ 광고
기타 ‖ 교재 ‖ 참고서 ‖ 잡지 ‖ 사보

기획 에서 제작 까지 모두 해 드립니다.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3가 59-23 영한빌딩 1102호 (우)100-013
전 화 ‖ 264-1576~7 팩 스 ‖ 264-1575
대 표 ‖ 김 춘 태